

AI·농업데이터 융합으로 농업의 새 미래 연다

광주 AI사업단-농진청 협약... 표준화된 연구 데이터 실무 적용 AI기업 농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스마트 농업 확대

앞으로 병해충 이미지 데이터, 드론 촬영 이미지 데이터 등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농산업 분야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지난 5일 AI사업단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이 오랜 기간 구축한 표준화된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 확대와 AI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표준화'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 형식이나 범위 등을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는 오류와 중복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며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세부 협약 내용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협력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협력 등이 담겨있다.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AI사업단으로부터 AI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아 수집·연구한 고품질의 농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한다. 또 현재 농촌진흥청의 '농업 분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도

AI사업단의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AI기업들에 공유되고,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사업단은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의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가 역량을 향상 시켜 국내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미래 농업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업들이 농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AI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품질의 연구 데이터의 활용은 농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AI 융합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AI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을 지원 받아 연구한 농업 분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 분야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영산강 일대에서 조류독감 확산 방지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서해안벨트 조류독감 비상

고흥 이어 무안서도 항원 검출...전남도, 추가 확산 저지 방역 강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에 밀집한 닭·오리 농장에 비상이 걸렸다.

울 들어 처음으로 고흥(4일)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서해안 철새도래지에 인접한 무안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AI 항원(H5형)이 검출되면서다. 방역 당국은 고흥(고흥호), 무안(영산강) 등 AI가 발병한 가금류 농장 뿐 아니라 전남 닭·오리 사육농가 상당수가 철새 월동지인 이른바 '서해안 벨트'에 집중된 점에 주목,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H5형)이 검출되면서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 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고흥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오리 2만 2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고흥의 경우 농장 반경 10km 내에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지만 무안의 경우 반경 10km 내 47개 가금류 농장 47곳(닭 31개 농장 227만 마리, 오리 16개 농장 28만 마리)에서 256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기우고 있어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철새에게서 유입될 가능성 등 발병 경로를 추적중이다.

특히 이들 농장 외에도 영암(54개 농장 275만 마리), 해남(20개 농장 108만 3000마리), 함평(56개 농장 284만 1000마리), 영광(38개 농장 238만 7000마리) 등의 상당수 농가가 철새도래지를 따라 '서해안 벨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 등은 12-1월에만 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철새에서 오

리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에 나서는 한편, 철새 도래지와 소화전, 저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확산 차단을 위한 감염촉조기 파악에 나서 전남 219개 오리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21일까지 2주간 무안·나주·영암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12월 한 달간 시·군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서해안벨트에 포함된 영산강 인근 고위험 지역(나주·무안·함평·영암)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 이행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철새 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폐사 증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통령 표창

2001년부터 조성...도·농 정보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기여

전남도가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해 도시와 농산 여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관료 기자 등 운영성과와, 정보화마을 등의 운영 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각 1곳 장관표창 36곳 등 총 38곳을 표창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와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농산여촌 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2001년 2개 정보화마을을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49개 마을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현재 32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아카데미 교육 추진, 정부예산 지원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도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개최, 정보화마을페스타(Festa) 참가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기간에는 네이버 쇼퍼라이브를 활용한 비대면 특판행사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정보화마을의 자립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도 소규모 '남도장터' 입점, 시설지원 사업 공모,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금수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디지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화마을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상에서 나주 배꽃마을 김의숙 프로그램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선 낙안 배이곡마을·화순 능주정보화마을·나주 배꽃마을·광양 삼진강재첩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은 실적 운영평가에 따른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특별교부세 212억 확보

재정 가뭄 속 전년비 30% 증가...제2순환로 체증 개선 등 투입

광주시는 "하반기 특별교부세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60억원)까지 합친 올해 특별교부세는 총 2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억원(30.1%) 늘었다.

특별교부세 정부 재원이 전년보다 1166억원(5.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값진 성과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지방재정 여건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용도를 정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 구간 교통처리 개선(10억원), 신장제 주변 도

로개설공사(15억원), 본촌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7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15억원), 무진대로 등 상습 결빙 방지 포장(14억원) 등에 쓰인다.

광주시와 별개로 자치구별로 동구 12억원, 서구 16억원, 남구 16억원, 북구 26억원, 광산구 16억원 등 총 86억원을 확보했다.

배일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가뭄 상황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 재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평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기업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